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과학은 더욱 발전되고 사람들은 살기 편하게 됐지만 그 심령안은 더욱 꺾여져가고 있는 이 때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0월 3일 (토) 제 155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 대 번영은 건국 초기처럼 국경 개방”

뉴스위크, 제프리 A. 터커 FEE 디지털 담당국장 이민문화개방 역설 보도

호주와 캐나다 사람인 내 친구 2명은 최근 미국으로 이민하려다가 몸서리치는 일을 겪었다. 둘 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미국이 세계에 표방하는 자유를 사랑한다. 적어도 과거의 미국은 그랬다. 한 친구는 몇 달 동안 대기하다가 겨우 이민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1명은 추방됐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관료들의 포로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비극이다. 미국인은 이런 지독한 시스템이나 관료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혀 모른다. 직접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관료주의가 얼마나 복잡한지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미국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힘은 무시무시하다. 그에 따른 미국의 생산성 손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정부가 ‘위대한 나라’ 미국을 사랑하고 그 사회에 기여하려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비영리단체 경제교육재단(FEE) 디지털 담당 국장 제프리 A. 터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 이민 정서가 강하지만 번영을 구가하려면 건국 초기처럼 전 세계 사람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역설한다(Why Open Borders?: What if we just let people move?).

“이민문화개방 미 건국이념과 부합”

미국 건국 후 첫 100년 동안은 이민 제한이 전혀 없었다. 전 세계의 사람을 환영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그땐 여권이 필요 없었다. 거의 모두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의 본질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사실상 이민을 금지했다.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고학력자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없다. 그 외 합법적 이민의 장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취업 비자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민을 막는데 180억 달러를 지출한다. 그런데도 미국에는 불법이민자가 1100만 명이나 되고 매년 50만 명이 미국 국경을 넘어가다가 붙잡힌다. 완전히 실패한 이민 정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성에 안착하는 모양이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집단 추방과 국경의 장벽 건설을 촉구하면서 큰 인기를 누린다. 다른 후보들은 그의 막말에 놀라면



미국내에서 반이민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미국이 과거의 번영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민문화를 개방하는 것이 생산성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도 이민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그의 핵심 주장엔 동의한다. 자유를 주장하는 많은 미국인도 ‘국경 폐쇄’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24시간 감시, 수백억 달러의 낭비, 집단 추방, 아메리칸 드림을 망치는 관료주의, 인권 침해 등이 그 결과다.

이런 정치적 히스테리 와중에 감

히 나서서 ‘국경을 개방하라’고 부르짖을 사람은 없다. 그런 말만 들어도 미국인은 발벌 땀다. 임금에 줄어들고, 복지가 엉망이 되며, 문화적 혼란이 생기고, 국가 언어가 사라지며,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며 극구 반대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루비오 여전히 선두, 피오리나 바짝 뒤따라

월드, 2차 공화당 예비주자 토론회 후 103명 기독교 리더들에게 설문 결과 밝혀

“나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많이 다녔다. 그런데 그건 활동(activity)이지 업적(accomplishment)이 아니다. 그 차이를 안다는 게 (힐러리와) 다른 점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업적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이 한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트럼프가 최근 피오리나의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역공에 나섰다).”

한때 ‘정보기술(IT)의 여제’로 불렸던 칼리 피오리나 전 HP 회장의 주가가 상승가로 치솟고 있다. “클린턴 대세론”과 “트럼프 돌풍”에 맞서, 공화당 경선

주자들 틈에서 거의 유일하게 ‘말이면 말, 정책이면 정책’으로 공화당내 지지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결국 CNN 추최로 열린 지난 2차 공화당 경선 주자 토론회에서 하늘로 치달을 것 같았던 트럼프의 야성을 정면 공격하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토론회의 승자로 선정되기도 한 피오리나 후보는 최근 월드지가 103명의 기독교 리더들에게 묻은 설문에서도, 순식간에 2위로 수직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Rubio, Fiorina, and Cruz up among evangelical insiders).

피오리나, “클린턴 대세론”과 “트럼프 돌풍” 맞서 지지 한 몸에 루비오, 이란핵협상과 이민문제 등 핵심 답변...한국 중시 발언도

물론 월드지가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미 복음주의 진영 전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이제 성큼 다가온 ‘2016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번 설문에서 두드러진 승자는 칼리 피오리나 전 HP 회장이다. 물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설문에 참여한 복음주의 리더들의 지지를 얻어과 받아,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피오리나 후보가 2위로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피오리나 전 회장은 1999-2005년 HP의 CEO로 근무하는 동안 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올랐다. 그러나 재직 시절 대규모 구조조정, 2005년 HP와 컴팩의 합병 이후



미국내에서 반이민정서가 강해지고 있지만 미국이 과거의 번영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민문화를 개방하는 것이 생산성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루비오, 피오리나, 트럼프.

전격 경질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0년에 공화당 후보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경력 때문에

일부 언론은 “그의 목표는 결국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자리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IT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집념”과 “소속감”이 대학졸업을 높인다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의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인/터/뷰
10대 기타연주자 필로스 듀오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2015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목회자들이 공통적인 고백-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리더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리더가 되십시오

일 자

2015년 11월 9일(월 저녁)-13일(금 오전)

장소/ 밴쿠버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1J8 Canada
밴쿠버 도착: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

등록문의

admin.ictc@gmail.com Katalk/ prayforspain

강 사

크리스 해리스 목사 깊은 기도와 말씀사역의 내적치유 강사
이영환 목사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목사 중보기도로 가정을 회복하는 LA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나의 기도의 삶” 특강

영희 맥도널드 목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덴버 교도소 체플린
박신일 목사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현승 목사 금식과 철야로 영적성경을 하는 목회자(토론토 서부장교회)
성현경 목사 기도로 시대를 보는 목회자(뉴저지 가스펠헬로스교회)

후원: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시론

내 나이가 어때서!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빠! 내가 내 친구들과하고 얘기할 때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 “아빠하고 얘기하면 항상 자꾸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과고는 앞으로의 얘기,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해”, 뒤통수를 땡-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 다. 그랬나 싶어 꿈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하고 미래와 내일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을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중 하나는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라는 “과거 지향적 삶”, 다 른 하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미래 지향적 삶”이 있습니다. 나이 70살에 늦게나마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에 들어가고, 환갑이 지나서 악기도, 미술도 배웁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애 하고 싶었던 거, 그러나 사는 게 바빠서 놓치고 살았다면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은 과거 지향적, 현실 안주적인 사람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는 미래 지향적,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가장 먼저 과거를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배를 타면 노 젓는 일보다 먼저 닻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배가 닻줄에 묶여있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과거라는 끈을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결코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주셨지만, 그들은 광야 길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아! 애굽의 고기냄비가 그리다.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막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이라는 “과거의 닻줄”을 끊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일의 소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쪽쪽 뻗어 나가고 싶은데 우리들의 발목 잡는 과거의 닻줄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기독교인들 헛바닥만 푸듯간에 고기 걸려 있듯이 죽 걸려있습니 다. 회개는 입술의 회개, 헛바닥의 회개, 말의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전인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인생을 살려면 회개 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활 위에 화살을 얹어 힘을 다하여 당기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녁이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팔에 힘이 점점 떨어져 마지막에는 손을 놓게 되고 화살은 아무데나 날아가 버립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목표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두부를 팔더라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팔고, 두부 봉지 안에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쪽지 하나 넣어준다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요, 시장 두부 파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인생을 살려면 회개 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마25)에서 선과 악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의 기준은 “멈춤”과 “움직임”입니다. 악과 게으름은 “멈춤”입니다. 선과 충성은 “움직임”입니다.

자전거도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멈춤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진보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다 말다, 했다 안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목표 삼았으면,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영성과 신앙을 갖고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집중적이고 집요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 넘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습니 다. 한 아이가 선생님께 “시냇물은 왜 소리를 내며 흘러가요?” 묻습니 다. 그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맹이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 인생도 살다보면 환란이라는 돌맹이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곳저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 안에 돌쭈날쭈한 돌맹이가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환란이라는 돌맹이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 신앙의 지혜를 갖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잘되고, 좋아지고, 나아지는 미래지향적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집념’과 ‘소속감’이 대학졸업률 높인다

WSJ, 맥킨지&컴퍼니와 제휴 대학졸업 성공적 요소 연구결과 보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기숙사로 돌아가 새 학년도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는데 실패해 학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졸업률은 여전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 졸업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 리서치를 통해 말해준다(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 College Student's Success).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2006년 학사 과정에 있는 정규 학생 가운데 불과 59%만이 2012년까지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남부의 한 대형 주립대학과 손잡고 대학을 중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생들을 파악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학



학생 마음가짐이 졸업 가능성 예측에 더 강력 변수

시험점수, 소득수준, 부모 대졸여부 등 외적 요소 앞질러

스마트폰 맞춤형 문자메시지 등 마음가짐 개선 개입 프로그램 증가

생의 마음가짐(사회적 소속감 등)이 종전에 생각됐던 것보다 졸업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변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학생의 마음가짐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 소득 수준, 부모의 대졸 여부 등과 같은 외부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다시 말해 이는 학생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이나 부모의 대졸 여부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학생이 자신의 학업과 교육기관에 몰입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다.

이 연구는 중퇴를 막고 졸업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10년 전 미국은 세계 청년 교육 이수율에서 7위를 차지했었지만, 그 이후 순위가 14위로 떨어졌다. 고급 인력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단순히 이 같은 하락 추세를 간과하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

3,5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학생들이 중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쳤다.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설문 대상자 가운데 20%는 등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연구팀은 중퇴가 학생의 마음가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필수적인 마음가짐은 집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장기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대다수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성공은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집념은 매일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방해요소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펜실베이니아대의 안젤라 리 더크윅가 실시한 또 다른 연구는 시카고 공립대 3학년생 수천명을 조사했다. 이 연구

에서 집념의 정도와 졸업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집념과 비슷하게 자신의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의 소속감도 궁극적인 성공의 강력한 예측 변수다. 실제로 소속감이 고교 성적, 부모의 대졸 여부 등과 같은 요소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첫 학기에 학생들은 상당히 단절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

졸업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자신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마음가짐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고등교육에서 불가피한 난관을 견뎌내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학 학위'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미국 다시 번영하려면 건국 초기처럼 국경 개방해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이민자의 범죄율은 미국인보다 낮다. 이민은 실업을 조래하지 않는다. 이민자는 미국인보다 공공혜택을 적게 누린다. 이처럼 트럼프의 이민정책 제안서는 하나 같이 잘못됐다.

이민 제한은 최소한 두 부류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공격한다. 외국인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임의적인 무역 제한처럼 그런 제한은 자유로운 경제적 교환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다.

대부분의 이민 반대는 성급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미국인은 자유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에게 자유가 사라지면 다시 자유를 찾았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을 두려워한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회가 엉망이 되는 시나리오를 떠올리기는 너무도 쉽다.

금주법 시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금주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술 생산과 소비를 다시 허용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두려움

이 팽배했다. 주정뱅이가 거리를 가득 채우지 않을까? 쥐꼬리만한 소득을 술에 탕진하지 않을까? 가정 이 파괴되지 않을까?

자유를 어떻게 적절히 누릴 수 있을지에 관한 상상력의 부족이 미국에서 이민과의 전쟁을 끝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미국 각 주 사이의 경계선을 엄격히 단속한다. 검문소가 있고, 여권을 검사하고, 마약 탐지견으로 소지품을 검색한다. 오하이오 주에서 네바다 주로 직장을 옮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버지니아 주 주민이 뉴저지 주에서 비자 기간을 넘기면 추방될 수 있다. 다른 주로 이사하려면 갖가지 서류를 구비하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노동시장이 엄격히 규제돼 고용주가 자신이 사는 주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때만 다른 주의 주민을 고용할 수 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면 미국 각 주 사이의 경계선 개방과 자유 노동시장을 제한하는 사람은 미쳤다 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 각 주 사이의 자유 이주를 허용하는 조건은 미국과 멕시코

코, 캐나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때와 같다. 여권을 발급하는 정부 가 다들 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 산다고 치자. 내가 북부 일리노이 주 시카고 출신의 조지아 주 이주를 금하는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시카고엔 범죄율이 아주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들어오면 내가 받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진다. 또 그들은 미국 남부 사람의 생활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각 주 사이의 이주를 제한해야 할까? 트럼프는 찬성할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깔린 논리는 미국 각 주나 각 도시 사이의 이주 제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내 이주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까? 자유의 힘 때문이다.

국경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려면 먼저 실험이 필요하다. 근래에 그런 실험이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우던 28개국이 있다. 언어, 종교, 풍습도 모두 다르다. 서로 너무 혐오해 집단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라들이 전부 국경을 개방했다. 20년 전 실행되기 시작한 쟁쟁조약이다. 그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사람들은 쟁쟁 구역 안에서 어디서든 살고 일하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관료주의가 이동의 자유와 일할 자유를 막지 않는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세기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완전한 국경 개방의 위대한 실험이다.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이다.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은 모두가 총·장벽·철조망의 두려움 없이 지구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계다.

자유와 자본·노동의 자유 거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자유주의의 대표 사상가였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주의 자유를 재확립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평화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테드 쿠르츠 상원의원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루비오나 쿠르츠 그리고 피오리나 등 신앙의 인물이면서도 정치나 경영에서 검증이 된 후보군들이 복음주의 진영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맨해튼 선언(the Manhattan Declaration, 2009년 11월 기독교 진영 리더들이 오바마 정권의 진보적 정책들의 과잉에 따라 생명의 신성함, 전통적 결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불복종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선언) 사무국장, 테셀(Eric Teetsel)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말해준다.

“팻 로버슨, 마이크 허커비, 그리고 릭 샌토럼의 성공은 공화당내 유력한 지지자들이 복음주의 진영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루비오 후보는 생명, 결혼 그리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분명한 신앙 전명과 함께 정책 차원에서도 돋보이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카리스마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승리에 목말라하는 복음주의 유권자들(44%)을 사로잡고 있다”고 루비오 의원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리더들이 대권 주자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정책 쟁점들은 1)미국 내 종교적 자유 2)낙태 3)외교 정책 4)결혼과 가정 5)대법원 판사 임명 등이다.

루비오 여전히 선두, 피오리나 바짝 뒤따라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러한 관측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힐러리 전 장관은 리더십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국무장관 재직 당시 ‘개인 e메일’ 사용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다 보면 전직 장관, 상원의원,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신뢰감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할 정도로, 힐러리 후보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6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시미벨리의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진행된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트럼프를 궁지에 몰아붙여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 받은 후보로,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그녀가 선정됐다.

미국 정치인의 인기도를 주가로 환산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프레딕트잇’에 따르면 이날 토론 직후 ‘2차 토론의 최대 승자가 누구인가’를 주제로 이뤄진 거래에서 피오리나의 주가(70센트)는 전날보다 16센트나 상승했다. 루비오 의원의 몸값(23센트)도 11센트 올랐다. 토론에 나선 11명 후보 가운데 주가가 전날 대비 오른 정치인은 이 두 명밖에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도 피오리나와 루비오 의원을 토론회 승자로 평가했다. 폭스뉴스가 진행한 지난 달 토론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1부 리그’로 올라온 피오리나는 이날도 낙태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감성적 이면서도 직설적으로 제기해 큰 박

수를 받았다.

루비오 의원 역시 발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는데도, 이란 핵 협상과 이민문제 등 당면 현안 전반에 걸쳐 핵심을 꿰뚫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화당 잡음 중 유일하게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



던 루비오 의원은 이날도 한국을 중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된다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이스라엘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미국 정치인들이 동맹국 호칭에서 일본을 앞세우는 것과 달리, 주저 없이 한국을 먼저 거명했다.

한편 피오리나는 트럼프가 자신의 외모를 언급한 데 대해 “이 나라 여성들이 트럼프 후보가 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 어냈다. 트럼프는 “피오리나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두 사람은 경영 능력을 놓고도 말씨름을 벌였다. 트럼프가 ‘HP를 망친 경영자’라고 공격하자, 피오리나는 ‘카지노 사업으로 엄청난 빛을 진 사람이 트럼프라고 반박했다.

보수 진영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

지 재단 이사이자 글로스터 연구소의 회장인 케이 폴스 제임스는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 정책 입장,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등이 공화당 진영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루비오 후보가 복음주의 진영의 대체로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려 57%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사스라는 유리한 신앙적 고지를 발판으로, 오바마 정권을 강

소망 칼럼

기뻐하기보다 감사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의 사도된 것을 만족하기보다 자기를 그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의 사도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됨은 만삭되지 못해 난 자요, 행위는 품시 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玷辱하던 자인데 그럼에도 사도가 된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하고 만족스러운 일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놓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뿐이었다(고전15:9-10).

바울은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기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고 했다.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우리도 주님의 사업에 봉사할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는 것임을 깨달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다.

사도 바울은 칭찬받을 때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교훈하였다. 명예와 칭찬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시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니”라고 외친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면류관을 받았지만 실은 면류관 받을만한 믿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은 바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 드린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칭찬과 명예를 받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큰돈을 벌었을 때 만족하기보다 그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신명기서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8:17-18)고 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에도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성도는 무엇을 성취했거나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5년 11월 30일 / November 30, 2015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목 회계: 홍순복/ 서기:김정준/ 홍보담당:이상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게 있느냐?

2015년 가든그로브 지역 제 56기 C.W.M.

전도훈련

“세상의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도 전도지를 가방에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뉴욕장로교회 김옥희 권사)

전도가 몸에 배어 내 생활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일 시 : 10월 19(월), 20(화), 21(수)

저녁 7:20 ~ 9:40

장 소 :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김경섭 목사 시무)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840

Tel : 714-534-1135

대 상 :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모든 분

수강료 : 40불(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포함)

*4명 단체 등록 수강료 50% 할인

연락처 : (562) 480-6975 / (714) 371-6406

(310) 749-7522 / boksupcho@gmail.com

주 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후 원 :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주 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C.W.M.은?

- 198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전도 훈련 기관입니다.
- 라 니라왕로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돌아보아야 할 왈도파의 신앙

신앙을 평생 지켜낸다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부자 청년이나 데마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이태리의 북쪽 피아첸자(Piacenza)에 갔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토리노(Torino)의 깊은 계곡 앙그로나(Angrogna)를 방문했다. 그곳은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왈도파(Peter Waldo 1170-이태리에서는 발데제라고 함)의 본부가 자리한 곳이다. 알프스 산자락을 등진 작은 도시로 그 옛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숨어들어온 사람들의 모여 사는 마을이다. 그들은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락한 삶을 던져버리고 깊은 계곡으로 들어와 높은 산자락의 경사진 비탈을 일구며 살았던 사람들의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 터를 올곧게 지키며 살아오고 있다. 그 깊은 골짜기를 영적 소중환 유산으로 지켜가면서 말이다.

왈도는 본래 불란서의 리용 사람으로 장사로 큰돈을 번 사람이다. 그는 어느 날 영적 클클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가톨릭 수사를 고을

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게 했다.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1960년대이었으니 무려 칠백년 전의 상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않다 싶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로 전하는 사제의 설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추측 내지는 더듬어 이해해야하는 정도였다. 그러기에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정황에 살던 왈도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그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당국에서 알게 되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버렸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일은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드디어 완역된 불어로 된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왈도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

다. 성경 외에는 비록 교황의 말일지라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는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했다. 즉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다. 그는 제자들을 성경대로 두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자로 파송했다.

왈도는 파송한 전도자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작은 행상을 곁하도록 했다. 그것은 아주 초라한 행상이었는 데 실과 바늘, 머리빗, 여인의 장신구, 옷 끈 등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어떤 의미에서 자립 전도였다. 고달프지만 순박하기만 한 시골 사람들, 가난하지만 한없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도자들은 깊은 산골의 초라한 마을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물건도 팔았다. 당시에는 그런 전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파격적 열매를 맺어지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관

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펼쳐놓은 물건을 본 후에, 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답니다”라고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 운동은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세상을 삼시간에 불붙게 만들었다. 마치 여름에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

다. 13세기에 시작한 복음운동, 그것은 열약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한 작고 미미한 운동이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조직력도 없고, 또 후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작고 미천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들의 복음 운동은 남 볼과 스위스, 중부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중부 이태리까지 삼시간에 복음이 활화산처럼 옮겨 불게 하셨다.

그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복음의 종자 씨가 되고 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종교적으로 용인한 19세기 중반까지 저들은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의 오솔길을 걸어야 했다. 이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 때때로 알프스 계곡을 흐르는 강물을 피로 빨갳게 물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무려 6백 년 동안을 산속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버텼었다. 이들은 계속된 핍박으로 무려 2백만 명이상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수칙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 그리고 자주 모이는 집회였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바위굴과 공부했던 신학교,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예배드리기를 작정한 탑은 지금도 깨끗하게 남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도전하고 있다.

그곳을 지키는 왈도파 장로님은 말한다. 그 옛날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불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주일에는 불어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 무려 6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불란서 말을 모르는 사람은 왈도파와 관계없는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이들이 과거 숨어 살았던 계곡의 은신처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날 성도가 불쌍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웅변을 토하고 있다.

(9면으로 계속)

푸 / 른 / 초 / 장

장재웅 목사

(통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미국인이 쓰는 화폐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의 색깔이 초록색(Green) 즉 나뭇잎색이라는 것입니다. 1달러에서부터 100달러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록색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개척시대에 개척자들의 필수품은 4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빵이, 총, 목목이었 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빵이는 밥을 굽기 위해 좋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목목은 그 땅이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목목을 심어 그 목목이 잘 자라면 그 땅에 정착하였고 목목이 자라지 못하고 죽으면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돈의 색깔을 ‘목목의 색깔 Green’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미국의 모든 화폐, 100불 지폐에서 1센트 동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볼 때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인들이 개척당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돈의 권세가 대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서도 돈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부모 형제, 부부사이에서도

돈(MONEY)과 교인 수(MEMBERSHIP)가 줄어든 때 (마10:1-4)

돈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돈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돈의 파워를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돈에 대해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그 때부터 돈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돈의 힘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Money)과 교인 수(Membership)가 줄어저갈 때 소명의 이유에 대한 의미(Meaning)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

는 것입니다.

얼마전 국민일보에서 민병진원장의 가정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 일명 KS라인에 하버드대와 보스턴대에서 치의학을 공부하고 4대째 의사집안으로 신앙명가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2011년부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치과진료를 돕고 수입의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선교협력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장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MIT 하버드대 한국 유학

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다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창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 제자 중 가버나움 세리출신 마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편에 속하였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나 종교교사가 지나다가 세리를 만나면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인

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법정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 다. 세리는 결코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관할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맡아서 자신이 세금을 미리 내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세와 관세가 있었는데 정세는 인두세(사람들의 머 리수에 따라 냄), 토지세, 소득세가 있고 관세는 통과세, 마차세, 물고기세 등이 있는데 이 관세는 특별히 민족을 수탈하는데 이용되어졌습니 다. 가령 마차세는 바퀴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세금문제로 여러 차례 봉기가 일어날 정도였습니 다.

(5면으로 계속)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4) 마태복음 19장 3-12절

본문은 바리새인의 시험으로 여자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창세기 2장 24절에 제시된 결혼질서라는 규범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본문은 결혼이 본질에 있어서 한 몸이 된다는 성격을 가지며, 구속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지속성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구적이므로 결코 해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성행했던 이혼 증서의 남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는 인간이 만든 법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복인하신 것이며,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혼증서 제도가 창세기 2장 24절의 창조

대한 대체물이 되는 방식으로 표현화되면 총회는 이 성범죄를 ‘포르네이아(pornei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인 자위행위와 포르노 이용을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홀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의 ‘음욕’은 간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위행위와 포르노는 거의 성적인 의도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와 포르노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향할 때 음욕의 죄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음욕을 이혼의 사유로 활용하기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욕은 마음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자위행위와 포르노 사용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대체물로 역할을 할 때, 이런 행위를

만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15절).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서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막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믿는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신자에게는 이혼권과 동시에 재혼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비공식적인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믿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자신을 결혼생활의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인

우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에 대한 간단한 교회 사적 고찰

1) 초대교회의 결혼 윤리
(1)초대교회는 일부일처제를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부일처제를 강조함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는 것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로마세계는 신약성경과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혼관은 결혼을 서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계약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혼외정사의 기회는 넓게 열려 있었으며 정욕을 위해 수 많은 거리의 여인들이 있었고, 육체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는 점들이 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이혼에 대하여 (하 - 1)

질서를 거슬리는 것으로 원래에 없었던 것인데, 그 당시 만연한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내린 결론은 첫째 부당한 이유로 아내를 내어 보낸 후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남자는 분명히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이 간음을 범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혼의 경우라면, 그 이혼으로서 결혼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성행했으며 당시의 이혼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엄격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나니라”는 말씀에서 음행은 간음보다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많은 성범죄를 가리킬 수 있고 간음은 그 가운데 단지 하나입니다. 음행은 그 악성경에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에 대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0-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의 ‘음행’이란 단어는 실제적으로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범죄는 간음 뿐 아니라, 음행, 매춘, 근친상간, 동성애, 접승과의 교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범할 때, 즉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그는 자신의 결혼서약을 깨는 것이며 또 배우자와 맺은 한 몸의 관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음행에 대한 이해

미국 장로교회(PCA)는 보고서에서 음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자위행위와 포르노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위행위와 포르노는 명백하게 몸이 하나됨의 관계를 깨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들이 배우자에 대한 결혼의 권리를 이루는 대체물이 된다면 그것들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단은 총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도 원리는 그 성범죄가 분명히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깨뜨리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어떤 성범죄는 반드시 부부의 연합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가 배우자와 맺고 있는 한 몸이라는 연합관계에

6) 고린도전서 7장10-15절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생활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신자는 이혼하지 말고 만약 신자가 이혼한다면 다른 대상자들과 재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음행을 한 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출교해야 하며(5:2,13),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5:11)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 사이에서 음행이 발견될 경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관계를 아예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행의 경우에 이혼으로써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갈라진 상태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지내거나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는 부패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이 아닌 다른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혼하는 악을 범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하던 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되어 혼합혼 관계에 들어가게 된 부부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합혼이라도 결혼의 연합은 깨어져서는 안되며,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거나 내어보내는 일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12-13절)”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교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오염시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결혼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곧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도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을 깨지 않고 유지시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할 때”입니다. 믿는 배우자와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결혼생활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 곧

정반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국가에 이혼서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이혼을 주도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해서 이혼을 유발시킨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배우자는 단순히 그 상황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서약을 지키고 있다고 신뢰할 만한 주장을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주장이 신체나 언어폭력,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성적 갈등, 필요를 공급하지 않음, 등으로 인해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원 결혼은 무효이며 당사자들은 재혼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해결책이 모두 실패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7) 로마서 7장 1-3절

바울은 결혼법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구속력이 있음을 밝힙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결혼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반적 원리를 재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는 결혼의 구속에서 자유하였으므로 재혼이 허락되며, 그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와 믿음이 다른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재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로 제시 됩니다.

결혼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이며, 구속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나 세우신 질서이며, 그 지속성에 있어서는 영구적인 것이므로 사람이 이 결혼을 자의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에 남은 배우자는 이혼한 후에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간음을 범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음탕한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결혼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이 노력이 실패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이며,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 역시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자들과만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들이 결혼한 후에 한 배우자가 신자가 되어 혼합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신 배우자가 개종할 마음이 없어도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할 때는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하지만,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믿는 배우자는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이 노력이 실패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합법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믿는 배

우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같이 일부일처제를 매우 강조하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터툴리안(Tertullian)은 아담에게는 하와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또 히에로니무스(Hieronimus)는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표현한 것이 그 근거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남은 배우자는 과부나 홀아비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극단적인 입장은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범한 간음 때문에 이혼한 경우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마스의 목자서(The Shepherd of Hermas)는 남편이 아내가 간음을 범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아내가 회개하지 않고 간음을 계속 행하는 데도 같이 사는 것은 아내의 간음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갈라셔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남편이 아내를 내어 보내고 난 후에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혼하지 말고 남아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메일: yoonsuklee@hotmail.com (계속)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리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리들과 같은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기로 맹세한 열심당원(셀롯)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습니다(마10:4). 열심당원(Zealot)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사용을 서슴지 않는 과격한 애국 단체로서 로마정권과 로마인들에게 보복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아울러 로마정권에 아부하거나 협조하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 목표가 되었 습니다. 그렇기에 열심 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는 상식적으로는 함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나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서 어디에도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의 기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은 마태를 보자마자 감추어 두었던 비수를 뽑아 그의 가슴에 찌웠을 일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가나나인 시몬이 세리 마태를 만나기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마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보니 삶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E-Mail: tlspec0316@gmail.com

Q: 저는 현재 가든 그로브에서 개척하여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요즘 교인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상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든그로브 정 목사

A: 교회를 개척하여 교인들에게 바른 교회상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바르지 않기에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 머리 속에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은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된 라마나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사무엘 시대의 이 라마나웃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라마나웃은 환난 날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칠 때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고 거기에서 거하였 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숨겨주면 사울의 왕의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라마나웃이 환난당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됨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이 라마나웃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라마나웃은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나웃은 어떤 곳입니까? 나웃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거처, 거주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나웃은 사무엘이 자신의 주변에 몰려드는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라마의 어느 초원지대에 선지학교와 기숙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대의 대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의 영성이 뛰어나자 그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하여 주변에 모여든 젊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배우며 영적훈련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패잔병 수용소가 아닙니다. 영적 학교와 군대입니다. 영적 전사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함께 훈련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쁜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제자훈련을 33년간 하였습니 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라마나웃같이 부지런히 사람을 키우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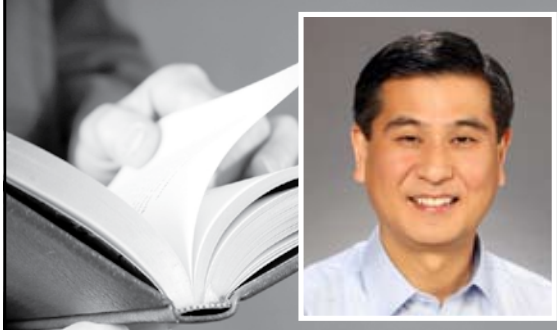
셋째, 성령님의 임재와 기쁨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라마나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자기 부하들 중에 특수부대원들을 보내었지만 그곳에 가자 성령님이 임해 예언을 하고 사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잠을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차례나 하였 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찾아갔으나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신이 임해 예언을 하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라마나웃처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쁨부움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 찬양에서 기쁨부음이 넘쳐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태와 열심당원(Zealot, 행1:13) 출신인 가나나인 시몬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가 되고 보니 둘의 관계가 정적의 사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손잡고 일해야 할 신앙의 동지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제자 되어 손잡고 나아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 보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잠재력, 그 능성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을 데려다 만들어서 쓰시며 레위가 변화된 후 마태(하나님의 선물이란 뜻)가 될 것임을 바라본 것입니다. 셋째 공부 기록의 전문가인 마태는 후에 마태 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비록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세리였지만 회심한 후에는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한 관찰하고 증거하는 마태복음(Gospel of Matthew)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까지 주님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진 아프고 쓰러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

거는 바꿀 수 없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우리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 전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권위를 만날 때 잠자던 성실과 진실함, 소명과 사랑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자신에 대한 기사는 부름 받은 사건 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판복을 타 복음서에 는 언급되지 않은 자신의 전적이 세리였다는 명예롭지 않는 사실을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마10:3).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전 자신의 한없는 기쁨함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 원한의 감정을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미움보다는 사랑, 돈보다는 사람, 인기보다는 사명, 성공보다는 섬김에 의미를 두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기쁨도 설움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가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향의 시작 (1)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다. 교회를 향한 내적, 외적 도전을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이다. 미약한 모습으로 출발한 초대 교회는 연속하여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은 위기를 거듭 맞았다.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강해졌다. 복음은 생명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리는 순교자들이 속출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들이 흘린 피로 적셔져 영적으로 옥토로 변한 더 위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다. 결국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던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이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질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사건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해피 엔딩

기독교의 전환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된 소중한 자료가 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260-340)가 저술한 “교회사”이

다. 그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초대 교회의 모습과 로마 제국의 정복 과정을 친히 경험하였다.

“교회사”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7장까지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교회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는 이곳에 타인에 의존하

여 2차 자료를 담았다. 도서관에 진열된 교회 역사와 관계된 자료를 인용하고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글을 기록하였다.

8-10장은 앞쪽과 대조를 이룬다. 유세비우스가 친히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빈번히 1인칭을 사용한다. 메시지를 매우 분명히 설명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담으려는 것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교회 역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역경을 이겨낸 복음의 승리가

있다.

유세비우스는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들을 열거하며 초대 교회를 풀어간다. 상대적으로 초대 교회의 신학논쟁이나 이단문제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그가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관심이나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으며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들로부터 계승받은 신앙의 전통이 교회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그러나 그가 황제들을 소개하는 더욱 분명한 이유가 있다. 콘스탄틴 황제를 앞선 황제들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순교자의 붉은 피를 찍은 펜으로 써 내려간 “교회사”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유세비우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콘스탄틴 황제를 친히 보내셨다고 믿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받은 것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이루어

진 하나님의 일이다.

■ 밀라노 칙령(313)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전 황제들이 군림할 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8장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한다.

“나는 이 현장에 있었다. 처형하는 장면을 친히 목격하였다. 희생자들의 일부는 머리가 잘려나갔고, 다른 이들은 불에 타죽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루에 죽음을 맞이했는지, 살육자가 사용한 무더기

많은 도끼가 쪼개질 정도였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지쳐서 간간히 휴식을 취해야 했다. 이 모든 시간동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성도들이 지닌 놀라운 열망과 신적 능력과 열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때의 성도들이 유죄판결을 받자마자, 성도들이 여러 방향으로부터 나와 재판관 앞에 있는 단상 앞으로 달려가 자신들도 기독교인임을 선언하였다”(교회사, 8. 9).

9장은 기독교가 자유를 얻기 바로 직전 최후로 기독교를 탄압하다 막시민(Maximin) 황제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그는 312년에 전쟁에서 리키니우스(Licinius)에게 패한 후 자살한 인물이다. 유세비우스는 이곳에서 1인칭 복수 “우리”를 눈에 띄게 자주 사용한다.

넘겨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고 확인한다.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9장 맨 마지막 문장에서 313년 그들이 함께 선언한 ‘밀라노 칙령’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

밀라노 칙령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예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 반면에 모두는 자신의 성향과 원하는 바대로 자신이 선택하는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왔다...나, 콘스탄틴 어거스투스하 나, 리키니우스 어거스투스는 많은 후원과 함께 밀라노에 도착하여, 대중에게 장점과 유익한 것에 대하여 긴밀하게 상의하였다”(교회사, 10. 5).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기독교와 관련되어 선포된 법령이

유세비우스 관점에서 쓴 “교회사”는 기독교 전환기 상세 기술 밀라노 칙령은 핍박과 순교의 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 마감

야 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마치 ‘초대교회 수난의 역사’라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황제의 핍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복음을 말살하려는 황제들과 신앙은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의 대조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초대 교회가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순교와 인내로 복음을 굳게 지켰던 현장을 소개하고 싶었다.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과,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고 싶은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밀라노 칙령’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였다. 핍박과 순교의 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가 마감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난의 끝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역적 방향의 시작이었다. ‘밀라노 칙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7)-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들은 친구였을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9:2).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친구들을 잘 두었다. 믿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예수님에게

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다음 그곳으로 친구를 달아 내렸다. 친구는 이런 것이다. 만일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냥 돌아가든지, 아니면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을 뜯었다. 구멍으로 친구를 밀로로 달아 내렸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우정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였을까? 예수님은 그를 “작은 자”라고 하셨다. 이는 헬라어로 teknon으로서 아이들을 가리킨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9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중풍병자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아이의 친구들이었다면,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이었다는 말이 된다. 아이들이 친구를 들 것에 신고서 오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에서 밀로로 달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아이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들이 중

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 병자의 친구였다는 이야기는 없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막2:3).

아마도 그 아이의 부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사정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네 사람을 뺏아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록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가버나움에 갔다. 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

다. 아니면 돌아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아이를 달아 내렸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 그 아이를 고쳐 주셨다.

그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친구들은 아니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친구에 대한 우정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중풍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지붕을 뚫는 일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는가?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cschurch.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Tel.(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bjcs.org	밴앨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6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개혁일: 오전 10시, (만: 오전 11시) 유치, 유년: 오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텍스컬로)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schurch.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rjcs.org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253)667-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a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기독교의 기본인 복음의 감격을 되찾으라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체력이다. 만약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감독의 전술도 소화해내지 못하게 된다. 2002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선수들의 강한 체력이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고상한 신학을 알고 있고, 제 아무리 해박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뛰

어난 헌신과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공동체는 결코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계시하여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좋은 면을 먼저 칭찬하셨다. 그들은 주를 향한 수고의 헌신과 인내와 의로운 용기와 바른 교리를 분별해 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교회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현대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 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에베소교



여승훈 목사

회는 좋은 교회였고 품격 있는 교회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교회가 갖추지 못한 한 가지 기본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책망하셨다. 그것은 “처음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베소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그들의 수고의 헌신을 말하는가? 인내를 말하는가? 의로운 용기를 말하는가? 바른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는 말인가?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죽음

과 부활 사건과의 만남으로 인한 “과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의미한다.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의 헌신과, 인내와, 의로운 용기와 바른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수준 있어 보였고 품격 있어 보였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유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뿌리가 매우 허약한 사과나무로부터 많은 과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과수원지기를 한번 상해보라. 그 과수원지기의 기다림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기다림인가를 금세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기다림이 현대 교회와 일부 지도자들 안에도 팽배하게 젖어있다는 생각에 쓸쓸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세월을 따라 교회 활동의 흔적과 상흔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축구감독이라면 축구기구는 좋은데 체력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 5분을 버티기도 힘든 체력을 가진 선수를 경기에 기용할 용의가 있겠는가? 아마 그 어떤 감독도 그런 선수를 기용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만물의 감독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교회를 결코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신학은 있는데 올바른 신학의 기본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부지런한 수고의 헌신은 있는데 헌신의 기본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정의를 외치는 의로운 분노는 있는데 의로운 분노의 기본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만약 지역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다면, 회중들의 영혼과 교회공동체에 심각한 손상이 틀림없

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감격 없는 메시지와 사역과 프로그램들, 이제는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복음에 대한 감격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중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표면적 표현으로 복음으로 영혼들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였던 것이다. 결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곳저곳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 가운데 충만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만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실로 아름답고, 진실로 은혜롭고, 진실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풍경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KAPC 제21회 브라질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목사장로기도회 함께

KAPC 제21회 브라질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21회 브라질노회(노회장 하경남 목사) 정기노회 및 목사 장로기도회가 지난 14

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Agua de Sao Pedro에서 열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렘33: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노회는 목사장로기도회로 함

께 모여 41명이 참석했다.

노회는 개회예배 후 노회장 하경남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상정된 안건과 긴급동의안을 포함해 11건을 처리했다.

저녁집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회원 목사와 선교사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사역보고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회원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됐다.

한편 이번 노회는 쌍파울로에서 함께 모여 출발한 일정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공장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됐다. 이에 노회는 감사의 뜻을 모아 소정의 금액을 공장장에게 전달했다.

또 노회 둘째 날,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IPB교회(창립125년)를 방문하고 노회원들의 진목을 위해 레프팅도 함께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브라질노회)



제134회 햇불열방 중보기도회가 부에나팍제일교회에서 열렸다

말세에 시대적 사명을 준비하라

제134회 햇불열방 중보기도회 성료

햇불선교센터·기도원(원장 정희욱 목사)가 주최한 제134회 햇불 열방 중보 기도회가 9월 26일 오후 2

시 부에나팍제일교회(담임 노정해 목사)에서 열렸다. 이영덕 목사(LA벤엘장로교회 담

임)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햇불찬양팀의 찬양 인도했으며, 양우철 목사가 기도를, 김종필 권사가 특송을 했다.

이어 정희욱 목사가 ‘말세에 시대적 사명을 준비’(렘2:17-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2부 세계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삼십센터,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CGN TV 등을 위해 △지역복음화를 위해 각 교회와 목사, 선교사 자녀 건강, 경제, 사역을 위한 기도 등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3부 ‘성령님의 전인치유’는 이영덕 목사와 정희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GBC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시대 꼭 필요한 복음방송 되도록 최선”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9월 25일 오전 11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GBC 4대 사장으로 취임한 임덕순 장로는 “GBC사장의 자리는 파송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으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방송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GBC 전 직원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나가겠다. 그래서 GBC가 남가주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동포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인도로 열린 감사예배는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가 기도했으며 권영대 목사(남가주동신교회)가 특별찬양을 부르고,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가 설교했다.

이어 GBC 이사 김영일 목사가 이임하는 송정명 목사에게 이임패를 증정했으며 송정명 목사가 이임사를 했다. 송정명 이임사장은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GBC사장을 겸직하기 어려웠지만 학교의 배려

로 1년간 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GBC가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남가주 지역의 성도들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며 나가는 방송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임사에 이어 김영길 4대 이사장과 송정명 전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의 축사를 영상으로 소개했으며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가 축사를, 임중희 목사(GBC초대사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 씨가 특별 연주했다.

임덕순 GBC신임사장의 취임 인사 후 이종용 목사(코너스톤 교회)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출판 감사예배에서 이병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이희숙 목사

사모사역 40년 회고 및 출판 감사의 밤

사모 매뉴얼을 담은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의 저자 이희숙 목사 사모사역 40년 회고 및 출판 감사의 밤이 지난 26일 오후 6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렸다.

박기영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의 밤은 드림교회 카리스찬양팀의 찬양과 지대현 장로 기도,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 설교로 진행됐다.

이병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고전15:10)의 제목으로 자신의 아내 이희숙 목사의 삶을 인도해가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사모사역 40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상영했다. 이날 서평을 맡은 박기영 목사는 “사고와 사색이 함께 이루어져 숙성되고 발효돼 깊고 감칠맛 나는 책이며 표절을 발견할 수 없는, 세련되지 않았으나 진솔함이 가득한 책으로 슬픔과 애환, 탐의 40년으로 숙성된 열매가 가득 담겨있다”고 평했다.

이날 송정명 목사와 아들 로베르트 박사, 정한나 사모가 축사를 전했다.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은 “이희숙 목사는 열매결에 사모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목사 때려치라’고 소리치던 사모가 최고의 에제르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지나온 삶을 알았이 책으로 묶

었고 지금은 가는 곳마다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 책을 사모 매뉴얼로 추천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저자 이희숙 목사는 “부족함이 많은데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 에제르는 최고의 동역자이며 돕는 배필을 의미한다. 나의 부끄러움을 여과 없이 기록한 이 책이 사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아들 로베르트 박사는 영상으로 어머니의 삶을 담아 때론 폭소로 때론 진한 감동으로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하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 미자립교회 사모들을 특별히 초청해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본 책자 판매 수익금은 사모들을 위한 ‘에제르의 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책구입 문의는 heesook1939@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만 의지...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33회 HYM청년연합집회, 강사 김성환, 노창수 목사

HYM(대표 더글러스킴 선교사)이 주최한 제33회 HYM청년연합집회가 'One Body In Christ'라는 주제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컨퍼런스센터에서 실시됐다.

첫날 집회는 김성환 목사(가디나 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다'(요2:1-11)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세상에서 포도주처럼 혼합된 존재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생이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

돼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기독교인이 될 것을 도전했다.

둘째 날 '들것 인생'(막2:1-12)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노창수목사는 "우리들은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들것을 의지하는 들것 인생들이다"며, "들것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 때, 둘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가 될 때이다. 서로 힘을 합할 때 사람을 살리듯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각자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스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내게 위함"이라 말했다.

이번 집회는 첫째 날 헤브스밴드가, 둘째 날 HYM연합찬양팀이 찬양인도했으며, 백동휘 형제(은혜한인교회)가 첫날 특송을, 그리고 둘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LA정신건강국 주최 세미나에서 제임스 박 선생이 강의하고 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 사례와 대처법' 주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마음의 감기, 우울증 연령별 사례와 대처법' 주제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9월 24일 오전 10시30분 열렸다.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코디네이터의 진행으로 열린 세미나는 제임스박 선생(캘리포니아 메트로 폴리탄 주정부병원)이 강사로 나서 △원만한 개인 및 사회생활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및 스트레스, 더 나아가 우울증을 가져오는 요인을 줄인다, △나 자신,

가족, 교인,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박 선생은 "우울한 사람 중 60%정도가 몸이 아프다. 우울 치료 받으면 아픈 게 사라진다. 아파서가 아니라 느끼게 된다. 우울한 것은 감정적으로 몸아픈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못보게 된다"고 진단했다.

(박준호 기자)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갈보리믿음교회에서 열린 가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서임중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축복의 근원이 되라" ...강사 서임중 목사

2015 갈보리 믿음교회 가을부흥회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2015 가을부흥회를 '축복의 근원이 되라'(창12:1-3)라는 주제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다.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원로)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린 부흥회 첫날 집회는 갈보리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최남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믿음찬양대가 특송했다. 이어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창12:1-3)라는 제목으로 서임중목사가 설교했다.

서목사는 "설교는 설교자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설교자는 언어라는 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는 성직자다. 집회는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알고자 하

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하나님을 목상해보자. 그럴 때 우리 삶이 순탄해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채워질 것"이라 말했다.

서임중 목사는 둘째 날 새벽집회 △새벽의 은총을 체험하라(막 6:45-52), 둘째 날 저녁집회 △믿음의 법칙대로 행하라(마16:21-24), 그리고 주일 1부와 2부, △축복받은 삶을 연주하라(골1:9-12), 3부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삼상12:14-18)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지난 9월11일 120도가 넘는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9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사망한 자폐 한인 학생 고 이현준 군의 추모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 우측상단 타원안이 이현준 군의 모습

고(故) 이현준 군 추모촛불집회

지난 11월 120도가 넘는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9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사망한 자폐 한인 학생 고 이현준(19·영여명 풀)군의 추모촛

불집회가 22일 이 군이 숨진 채 발견됐던 현장인 유티어 어덜트 스쿨(Whittier Adult School)에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비전센터 컴교실 및 폰교실 개강

월드비전센터(원장 장재언 목사 905 S. Euclid #108, Fullerton)에서는 컴퓨터교실 수강생과 스마트폰교실 수강생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컴교실 초급반은 10월 9일(금) 오전 9시30분에 개강한다. 스마트폰 교실(갤럭시)은 10월 12일(월)부터 3일간 매일 오후 1시 30분에 개강한다. 초급반 학습내용은 컴퓨터 구성 원리, 파일 저장 원리, 폴더 만들기, 웹서핑, 이메일 개설과 사용법, 문서작성을 위한 타자연습, 문서 만들기과 저장, 표만들기, 라벨 만들기과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되며 매주 1회 2시간 씩, 한 학기 8주간을 공부한다.

▲문의: (714)353-1992

북한아동 위한 희망나눔 사랑음악회

북한 고아와 장애아를 위한 희망 나눔, 사랑 음악회가 원재단(Won Foundation 대표 윌미나) 주최로 10월 10일(토) 저녁 6시30분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음악회 출연진은 소프라노 황혜경, 소리에리 지명현 목사,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LA 레이디싱어', 보컬 앙상블 '보치엘레스티', CCM 가수 장혜연, 백예슬, 바이올리니스트 황여주 등이다.

▲문의: (714)235-9984, (714)743-2854

선한목자교회 가을부흥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가을부흥회가 10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립형천 목사(잠실교회 담임목사).

▲문의: (626)264-7976

선한청지기교회 설립기념 부흥사경회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설립기념 부흥사경회를 10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서정인 목사(컴패션 대표).

▲문의: (626)913-6611

현준 군의 20세 생일을 맞아 열린 이번 촛불추모제는 '지역 자폐아(Autism)부모모임'과 성 브루노 천주교회(St. Bruno Catholic Church)가 주관한 가운데 수백 명이 참석해 '촛불'을 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군의 지인 중 한 명은 "폴은 5살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그의 가족들과 너무 친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영화 토이스토리를 매일 보는 아이였고, 북음성가를 즐겨 부르며, 운동도 좋아했다"고 언급하며 "생일 축하해, 폴"이란 작별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현준 군의 누나 이승연 씨는 "현준이를 추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장애인들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 미국으로 이민왔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다. 사고당일 현준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 같아 아프다"고 말했다.

고 이현준 군이 다녔던 남가주밀알선교단 동부LA사랑의교실 장소로 사용되는 선한청지기교회 송병

주 담임목사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또 누군가 죽어갔다고 여겨지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며 "이곳에 찾아온 미국인들은 이런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고맙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목사는 "폴이 동부사랑의교실에서 섬기는 청년들과 지교회 사역자들과 너무나 즐겁게 지냈다. 그래서 이번일이 더 많은 마음의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이사장 소장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 것이다. 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학교와 스쿨버스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챙겨줬으면 한번더 사랑의 손길과 눈길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이현준 군의 장례식은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뉴욕에 위치한 성라파엘한인천주교회에서 집례됐다.

(박준호 기자)

세기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9: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c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9: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토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한국: KDC, 영어: KDC)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함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학 박 경환),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 Tel: (626)793-09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8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한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vd.,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청년) 성일영어예배: 오전 11:00 대림영어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성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Rd., Torrance, CA 90502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후 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어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문)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g.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각 교단 총회

오류동 총회건물 팔아 빚 갚는다

기독교침례교 강원도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대의원 15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선거에서 유영식(동대구교회) 목사가 625표를 얻어 595표에 그친 윤덕남(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서울 성일교회 협동) 목사를 30표 차로 제치고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차가 22표 밖에 나지 않아 2차 투표로 이어지는 등 총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제1부총회장에는 박종철 목사(전주새소망교회)가 98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기침은 교단의 순교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5월 8일을 신사참배 거부 교단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의했다. 기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회는 1935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한다고 선포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였다. 1942년부터 원로 지도자들이 투옥 순교 등 박해를 받았고, 1944년 5월 10일 일제에 의해 교단이 해체됐다. 이 안건을 상정한 새대구지방회 김호규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 제정은 한국교회사에서 영적으로 귀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 부채를 갚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한 ‘서울 오류동 총회건물 매매 안건’도 통과됐다. 이 안건은 2008년 이후 총회 때마다 상정됐지만 계속 부결돼 왔다. 기침 유지재단 엄기용 이사장은 “오류동 건물은 임대도 어려울 정도로 낡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류동 건물을 팔면 200억원이 넘는 총회 빚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돈을 목회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수차례 제기되는 등 진통이 이어졌지만 결국 가결됐다.

동성에 반대 대책의 건은 과도의 직전 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의원들의 박수로 가볍게 통과됐다. 또 부총회장을 지내지 않아도 총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 ‘제1부총회장 의무조항 삭제의 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는 총회장이 되려면 제1부총회장을 역임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이대위 전면개편’보다 ‘시간을 두고..’

예장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이 24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00회 총회 마지막날 회무를 가졌다.

이단사비대책위(이대위)의 정관 수정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핵심 쟁점은 현행 ‘이대위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대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한 것’에서 ‘총회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은 자 9인과 총회 허락을 받은 전문위원 9인으로 하는 것’으로의 수정 여부였다. ‘총회 산하기관인 이대위에 대한 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올라온 현의안이었다.

2시간여 격론을 벌인 끝에 총대들은 수정안을 정치부와 이대위에 맡겨서 두 기관이 서로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이대위 전면 개편’이라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장합동 총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두날개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의 이단성 논란과 관련해서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해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깊이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원론적 결론만 내린 뒤 논의를 마무리했다.

근로소득세율에 준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총대들은 목회자 과세와 관련, 전임목회자가 시무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서 자신이 현금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국민의 담세액(근로소득세율에 준해 책정)만큼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난해 총회에서 ‘종교인 자발적 납세운동’을 각 노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의했던 것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다.

헌법수정위원회의 보고 사항 중에서는 ‘담임목사 및 임시목사에 대한 명칭 변경의 건’ ‘담임목사 칭명 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이 모두 부결돼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총회는 교회·노회·지역별 이슬람 관련 특강 및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범교단적으로 이슬람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기로 결의했다.

총회 이틀째에는 신상현 총회장 등 예정고신의 새 임원단이 방문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신 총회장은 “합신 총회와 연합해 세속화되어 가는 한국교회에 거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같은 신학과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양 교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성소수자대책위, 차별금지법대책위 등 구성

예장개혁신(송천동측) 예장개혁신(송천동측)은 서울 서초구 축복교회 강남예배당에서 이날 ‘제100회 총회’를 열고 ‘성소수자 대책위원회’와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성경에 반하는 동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또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100회 총회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다. 무분별한 교단 합동을 막기 위한 ‘합동 및 영입위원회’도 조직했다. 총회 주소록을 만들고 1인이 2개 위원회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다중직자 제도를 정비했다.

총회는 전날 오후 새 총회장에 김정훈(54·축복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김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개혁교단이 내적으로 성숙해 수용할 준비만 갖추면 얼마든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단 신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든든한 초석을 놓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임원으로는 부총회장에 이승현 목사와 김안식 장로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는 25일 정오까지 진행했다.

목사 정년 폐지·여성안수 허용

예장개신, 개혁 일부 예장개신(총회장 박용 목사)과 예장개혁 일부교회(합동위원장 임장섭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중앙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제100회 개혁총회 합동 예배’를 개최했다. 양측은 합동선언서에서 “개혁총회는 교파색 지방색 기독교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합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런 역사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회에 남북간의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여는 초석이 돼야 한다. 개혁총회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 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으로 결정했다. 총회장에 박영길(명문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박용 목사, 총무에 최희용 목사를 각각 추대했다. 총회의 인준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조성현)로 정했다. 목사 정년을 폐지하고 여성안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장종로(총회장 강대민 목사)와 통합도 추진한다.

회관 매각·은퇴시 사례비 60% 지급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충남 천안 서부대로 명문그리스도의교회에서 이날 제8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종원 천안 명문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또 신조광(보람교회) 박우삼(주사랑교회) 목사를 부회장에 선임했고 장로부회장에 공창호 임마누엘교회 장로를 선출했다.

총대들은 서울 종신동 회관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서울기독교대 정관에 그교협 산하 학교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담임목회자로 시무하다가 은퇴할 경우 은급비로 사례비의 60%를 지급하며, 10년간 보장토록 했다. 교회 합병은 그교협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교회 합병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합병 교회의 재산은 그교협 유지재단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그교협은 내년 8월 14~17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그리스도인대회 준비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세계대회는 국내 5000명, 해외 2000명의 그리스도교회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예산은 총 12억3000만원으로 잡았다.

노숙인·실직가장과 정접게, 외국인 유학생과 흥접게…

한가위, 교회·선교단체 나눔 행사 만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외로운 이웃들을 위한 풍성한 나눔의 잔치를 연다. 유학생 선교단체 자스타(JASTA)는 올해로 14번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민족사랑교회공동체는 노숙인·실직가장들을 초청해 25일부터 사랑나라 집회를 열고 있다. 자스타 대표 구도보라(66) 선교사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많이 나온다”며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나그네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이주민사역공동체 은누리M미션은 26~28일 경기도 용인 추계리 양지은누리교회 액츄29 비전빌리지에서 ‘하비스트 추석 이주민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김포·의정부 등 20여곳에 있는 은누리교회 이주민사역공동체들이 모인다. 외국인 650여명과 봉사자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몽골·러시아·네팔인 예배를 섬기는 나안타이 아치트 전도사, 유 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니라우라 목사는 ‘나의 삶 세우기’ ‘나의 가정 세우기’ ‘나의 나라 세우기’에 대해 각각 간증한다. NGO ‘더 멋진 세상’ 사무총장 김창욱 전도사는 마지막 날 ‘그의 나라 세우기’를 주제로 설교한다. ‘국가별 모임’ 등을 열어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자스타는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마이 프렌드 페스티벌 2015 유학생 한가위 큰잔치’를 연다. 유학생들은 국악·태권도·CCM·K팝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송편 빚기, 전부치기 등 한국음식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30개국에서 유학생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스타는 2005년 일본인 유학생 복음화를 위해 설립됐다. 요리강습이나 한국어 성경공부교실 등을 열면서 더 많은 유학생을 섬기고 있다. 해마다 2월 말에는 유학생을 위한 선교집회도 개최한다. 서울 연세대 후문 쪽에 유학생 쉼터와 만나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나눔의교회(곽충환 목사)는

추석 당일인 27일 지역 노인 40여명을 초청해 죽을 대접하고 쌀을 선물한다. 지난 22~23일에는 형편이 어려운 16가정에 쌀 20kg을 배달하기도 했다. 19일에도 중구청과 함께 자선 바자를 열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총무 진방주 목사)는 26~29일 노숙인 임시보호센터인 서울 영등포구 ‘햇살보급자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명절음식을 대접한다. 27일에는 세 끼를 모두 대접하고 ‘웃놀이대회’도 연다.

민족사랑교회공동체(유수영 목사)는 25~28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성실동산에서 노숙인·실직가장 초청 제48차 사랑나라 집회를 개최한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갈3:8)’를 주제로 진행 중인 사랑나라 집회에는 실직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체는 첫날 목욕·이발 봉사를 했고 세면도구·의류 등을 제공했다. 미술치료, 웃음·건강 강좌, 영화상영, 워십공연, 경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친다.

경기도 안산 탈북민정착지원연합센터는 오는 30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1층 광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 ‘다양성, 서민예술 축제’를 펼친다. 탈북민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을 초청해 동요 부르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한다. 탈북민 정착지원연합센터는 안산 크리스마스교회(김경훈 목사) 하나교회(김요한 목사) 등 7개 교회로 구성돼 있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한과 잡곡 고추장 멸치 식용유 등 16종류의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담은 ‘추석맞이 선물키트’를 제작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나사렛대학교(총장 신민규)는 교내 유학생들을 초청해 명절의 기쁨을 나눴다. 지난 24일 충남 천안 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어울림 행사’를 열었다. 중국 아프리카 대만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웃돌이 제기차기 씨름 팽이치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나사렛대에는 18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6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세계구세군 27일 기도일의 날 제정

오는 27일은 세계구세군이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이다. 매년 9월 넷째 주일로 올해 한국에선 민족의 명절 추석과 겹쳤다.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은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각 교회에 배부하고 이번 주일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엔 이사가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라는 주제를 택했다. 고통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실태를 알리고 돕겠다는 뜻을 담았다.

개신교단 중 구세군이 인신매매 반대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연유는 1865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의 구제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부스 목사는 아내 캐서린과 영국 런던 거리의 부랑자를 돌보면서 여성과 아동의 성적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들은 구제시설을 마련해 피해자를 돌봄과 동시에 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자 처벌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섰다.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목적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게!

안종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씩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mission 선교의 창 (40)

영상문화 속의 현대인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오늘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상문화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영상매체를 통한 세속문화 한 복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속세를 떠나 수도하고 있는 승려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세상을 보라. 지역마다 영화관이나 PC방이 널려 있다. 집집마다 거실 한복판에 TV있다. 방마다 책상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다. 사람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이 영상문화는 하늘의 비행기에도 있고 땅의 자동차에도 있으며 바다의 배 안에도 있다. 아마도 인간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상문화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Reinforcement theory)에서는 대중매체의 폭력적 장면이 시청자의 공격성향에 감정적 자극을 하거나 내재적 잠재성향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제 유사한 행동을 낳게 한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이론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자제력이 있는 성인들은 영상매체를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순기능의 요소가 많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보여지는 폭력성, 선정성이 역기능을 유발하기 쉽다. 어떤 심리학자는 영상매체의 유해성에 감염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자제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날 성인뿐만 아니

릴수록 사회의 영적 분위기는 암울해지며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감각적이고 퇴폐적 문화에 영향을 팔수 밖에 없다.

교회의 선교적 대안

기독교 문화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인을 양성하여 영상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열악한 지역에 선교적 부담을 앉는 것 이상으로 영상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분야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사역에 소명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지

디어 및 IT를 통하여 세계선교에 이바지하고자 태동되었다. GMIT에서는 올해로 7년째 기독교 영화제를 주최했으며 이제는 미 주류사회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그간 영화제를 통하여 배출된 영화가 500편이 넘었다. 그중 압산된 작품들을 엄선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DVD를 제작하였다. 이 DVD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1만장 이상이 선교지에 보급되었다. 또한 GMIT는 크리스천 영화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었으며 인턴들을 선발, 교육하여 이 분야에 헌신토록 하였다.

올해는 특히 PPF에 영향을 받은

인간은 본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에 약하다.

영상문화는 인간을 자극하여 중독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

교회는 영상매체에 포로가 되어있는 청소년을 자유케 해야 한다.

순기능과 해롭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를 절제할 능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영상매체의 순기능의 이득은 20~30%요, 역기능의 해는 70~80% 이상 받고 있다. 이 비율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나이에 반 비례한다. 특히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영상매체는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그들에게 게임매체나 TV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은 이미 삶의 일체가 되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준 불행은 우리는 보고 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영상매체를 통해 세상문화에 취해 있는 자는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Context)에서 우리 기성 크리스천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가? 날아가는 세속문화에 어떠한 선교적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영상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영상매체로는 TV, 영화, 컴퓨터, 핸드폰 등이 있다. 이 매체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화이론(Catharsis theory)을 내세워 대중매체의 폭력성이나 범죄 장면을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공격행동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반면에 역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암시이론(Aggressive cue theory)이나 강화이론

영상매체가 낳은 문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안다. 90%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옆 사람과의 대화가 없다. 지역에서는 PC방마다 젊은이들이 매캐한 담배연기를 맡으며 밤을 지새곤 한다. 집에서 자는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공부(Research)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유해한 사이트(Site)를 클릭거리며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TV앞에서, 자녀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 앞에서 따로 생활을 한다. 가정 안에서조차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마땅히 예배 공동체이어야 할 가정이 영상문화의 영향으로 파편화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드러왔던 가정예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매스미디어가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교회 예배시간에도 세속문화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상당수 청소년들은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면 서도 순간적으로 SNS나 다른 사이트로 클릭거리며 파분한 예배시간을 탈출하려한다. 이 영상매체를 통한 역기능의 세속문화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쪼먹으며 정서적으로 강박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대중문화가 기승을 부

원해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스피버그 같은 세계적 감독이 나오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선교를 위해 탁월한 작가, 교사, 배우, 감독, 신앙인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많이 나와 거친 세속 문화를 이겨야 한다. 기독교 문화 창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시간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

오늘, 세상문화에 세뇌되고 빨려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구원하기란 쉽지 않다. 영화, TV, 스마트 폰이라는 영상매체 안에 무궁한 개발요소가 있다. 이 매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대중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상매체 분야는 21세기 최고의 전략적 선교지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독교 영화제를 통한 문화 창달 사례

한태평양 기독교 영화제인 PPF(Pan Pacific Film Festival)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기독교 영화제이다. 본 영화제의 목적은 기독교 영화인들을 양성하고 독려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 영화들이 선교적으로 쓰임 받게 하는 데에 있다. 본 영화제는 2008년도 한인 크리스천인 Kenneth An 선교사에 의해 창립된 GMIT(Global Media & IT)라는 비영리 선교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 단체는 미

한태평양 호주 영화제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도 코비난트 러시아교회 주최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PPF는 이 국가들에서 진행될 영화제에 파트너십을 갖고 영화와 콘텐츠 전문 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맺음 말

오늘날의 영상 미디어는 대부분 사기업으로 영위되고 있다. 사기업의 최고가치는 이윤추구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적 목적을 위해 영상을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구성하기 쉽다. 이에 비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와 지배정당에 의해서 편집과 제작방향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상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체가 되어 비판적으로 걸러낸 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문화를 창출한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문화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대중문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말은 공허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백적 영상이 인간과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하와이 일본선교

알로하! 하와이 일본인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떠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선교를 통해 일본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곳 하와이에 온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연약한 일본인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방송선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음전도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중 지난 6월에 보낸 선교편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의 말씀대로 주님이 만남을 인도하셔서 이제 일본인을 위한 선교방송 첫걸음으로 일본어 생명의 삶 “이노치노 이토나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한 달 동안 하고 일본교회에 알리고 나니 마침내 QT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일본 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인방송뿐 아니라 선교방송으로 시작된 방송선교 사역에 일본어 방송은 설교 QT 찬양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하와이의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일본어 설교와 찬양 QT 등 일본어 프로그램이 잘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2. 일본인들과의 귀한 만남이 은혜가운데 유지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3.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의 일본인들에게 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일본인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와이를 찾는 일본인 여행자들이 복음을 듣고 모국으로 돌아가 또 일본의 교회가 부흥하는 복음의 배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 때에 귀한 만남을 연결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길에 뜨거운 기도와 동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영, 김성희 선교사 드림
이메일: kshe2@hanmail.net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31일(토)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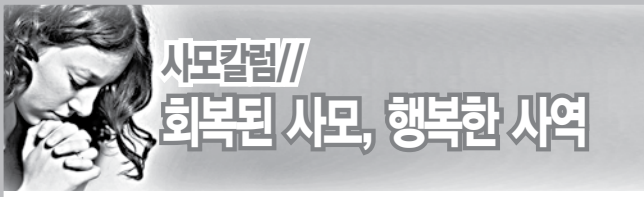
방송선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s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 갈멜산기도원 신년강화대회 1 ~ 10월 갈멜산기도원 신년축하기도성회 2월 갈멜산 강변교회(도원안양) 3월 천안강변교회(이화동목사) 8월 경희교회(도원 미중목사) 11 ~ 13월 불동민교회(남사마을 개척부흥회) 18월 배곡교회(신우목사) 22~ 3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월 LA 주님의 영성과신앙순례목사 2 ~ 7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 12월 GST 신학성경연구(34학) 15월 시영산로교회(배만목사) 16 ~ 19월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월 신도들 참가기도회(GST) 23~ 25월 동중교회(윤성호목사) 27월 백석신학대대학원 개강순회	1 ~ 3월 여세전교회(박정호목사) 5월 홍대교회(홍승권회장) (길영현목사) 9 ~ 11월 (합동)매주세상 연합성회 16 ~ 19월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 26월 갈멜산강변금식기도원(만경목사) 29월 신도들 참가기도회(GST)	6 ~ 8월 용인 신대교회(모용주목사) 13 ~ 16월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 ~ 22월 안산 신대교회(이성민목사) 23월 김대만교회, 대현역 제들 26월 신도들 참가기도회(GST) 27 ~ 29월 화평교회(이재우목사)	1 ~ 14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 ~ 21월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 ~ 27월 하늘바나교회(오영택목사) 31월 신도들 참가기도회(GST)	1월 ~ 4월 갈멜산 강변교회(도원 안양) 8월 11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5월 ~17월 양양대학교(노경환목사) 21월 예루살렘교회(류병복목사) 22월 ~24월 (합동)유니온교회(고자홍목사) 25월 ~30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6월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월 정윤교회(장대석목사) 20월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월 ~20월 GST 신학성경연구 (35학) 26일 신도들 참가기도회 (GST) 27월 ~29일 천마산기도원 (유광석목사)	3월 ~ 8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월 ~ 12월 나사렛성경연구 연합성회 17월 ~20월 GST 신학성경연구 (35학) 30월 신도들 참가기도회 (GST)	6월 ~ 8월 정윤교회(장대석목사) 14월 ~ 17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신도들 참가기도회 (GST) 21월 ~ 23일 통산교회(박경순목사)	4월 ~ 7월 성동중교회(이인호목사) 11월 ~14일 일산교회(김교문목사) 19월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월 대한교회(윤영진목사) 22월 ~3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2월 ~3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월 ~ 7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월 ~ 11월 성상성교회(이연호목사) 15월 대한교회(윤영진목사) 16월 ~19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월 대한교회(윤영진목사) 27월 ~29월 드림교회(장순호목사) 29월 신도들 참가기도회 (GST) 30월 강사제일교회(전종삼목사)	1월 ~ 2월 강사제일교회(전종삼목사) 7월 ~ 10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3월 ~20월 GST 미션서신회 (원문도미) 27월 신도들 참가기도회 (GST) 28월 ~31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1월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금성사예배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4. 사모의 사명 가꾸기(1)

사모는 가장 행복한 여성입니다. 행복한 여성은 매력에 있습니다. 매력 있는 여성은 미인입니다. 미인이란 외모만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지나가면 그 만입니다.

아름다움에도 의미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미인이란 의미와 재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사모가 된 여인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말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주로 가는 군인제도에는 징집과 자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된 해병대훈련이라도 자원해서 가는 경우에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군대훈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징집당해서 억지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모의 사명도 자원해서 하는 사모들과 억지로 남편이 늦깎이 목사가 되었기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모가 된 경우와는 차이가 큼니다.

그 중에도 사랑하는 남편의 선택에 의미를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조하는 사모들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보람도 느끼게 되고 재미도 생겨서 제법 사모의 냄새가 나는 매력 있는 여성이 됩니다.

사모들은 매력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녀의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별들이 항기 나는 꽃에 물려오듯 사람들은 사모에게 물려옵니다. 은은한 생명에너지의 냄새를 맡고 싶어합니다.

물론 사모의 길은 험난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사모의 길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목사이기에 짝지어야 하는 집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목사로서 가야하는 길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 대량 생산품처럼 나오는 목사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개척하는 길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선교지에도 만원사태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의미와 재미가 있는 사모는 매력 넘쳐
시대 따른 다양한 목사 배출에 사모의 양상도 달라져

갖고 사역하는 사모들은 아름답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모들에게는 매력이 흐릅니다. 매력있는 사모들의 말은 집중도 잘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모가 되었는지 확신이 넘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의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사건이 생길 때가 있더라도, 설상가상으로 올린 데 달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해도, 앞이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제 여기까지 인가보다 라고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도, 이런 사모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모들에게는 의미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재미도 흥미도 있어 합니다. 지나치게 의미만 강조하면 지루해집니다. 모든 일에는 흥미가 있어야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흥미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전공을 택하여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전공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 듯 합니다.

사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부답이 되는

그렇다고 신학교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목사 과잉시대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되고 성도들은 참된 목사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사모들의 고민은 과거의 사모들의 문제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과연 예비사모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사모의 정체성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모란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목사이기에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심방을 하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으며 성도들을 양치려 양육하는 일에 아내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목사들이 배출되면서 사모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모, 교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모, 오직 자신의 전공만을 위해 사는 사모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성도들은 굶주리고 있고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한다는 호소를 듣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1세대들의 고민과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사모들, 예비사모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요? 사모의 정의와 그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는가? 그 옛날에 경험했던 쓰라린 눈물의 고백은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시대에서 사모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일은 새로운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론자인 느브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그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단2:47).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실인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한 나라의 왕인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친다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삼상14:13-23)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고 일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순간에 전전해서 블레

셋 사람들을 20명가량 죽이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면서 서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삼상14:24)

전쟁에 크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잔치를 열어야 할 시간에 사울왕의 경고망동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온 백성들이 피곤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블레셋에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짝짝 못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 전세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

는 모습입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내 원수들을 갚는 때까지 아무도 먹지마라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한다”는 말이 얼마나 책임 없는 말이요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성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수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삼상14:25-42)

사울의 경고망동한 말이 백성들에게 더욱 고통만 줄뿐 아니라 백성들이 전쟁 중에 너무 배고파서 송아지를 잡아 피 채 먹음으로써 더욱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피곤했다”라는 말은 “고통당하다, 압제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쭙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무 식물이란도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던 사울

왕의 말이 요나단이 꿀을 조금 맛본 것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결국 요나단이라도 죽일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일에 힘쓰되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삼상14:43-52)

결국 경고망동한 사울왕의 맹세가 요나단을 범죄자로 몰아서 죽일 뻔했습니다. 요나단은 뭐든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꿀 한방울 짙어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결단코 요나단이 죽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기 때문

에 여호와께서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하니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철저한 순종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43절) 잘못된 것이 없지만 꿀을 조금 먹은 것이 범죄자로 제비를 뽑혔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핑계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삼상15:1-11)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회복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요! 오늘 사울의 버림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

울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 있고 권세 있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사실 엉터리인데도 늘 승승장구하고 잘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

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삼상15:4-11)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사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말렉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함으로써 결국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

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잔인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생각에는 좀 과한 것 같지만 “아말렉”이 반드시 진멸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돼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강사: 라해체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인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경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인/터/뷰

10대 기타연주자 필로스 듀오

Philos는 포괄적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 이웃과 나눌 때 세계정상의 길 간다

10대 남매들로 구성된 기타듀오인 필로스 듀오 그들의 연주는 10대들의 연주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화려함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 tvN방송국에서 주최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코리아 갓 탤런트2' 출연을 시작으로 SBS '스타킹', 그리고 KBS 배철수의 '7080콘서트' 등에서 그들이 가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놀라움과 경이감을 안겨준 바 있다.

필로스 듀오 장하은(19), 장하진(18) 남매는 지난 9월 4일 브리지교회를 시작으로 15일 이음카페에서 열린 더텐트 콘서트까지 5차례 공연을 가졌다.

필로스 듀오를 지도하고 있는 필로스 기타 콰르텟의 대표이자 필로스 듀오의 아버지인 장형섭

뒤로 연기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공연을 해오면서 한번도 핑크를 낸 적이 없어요. 잡혀진 일정은 장소사정으로 변경



리고 연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통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타연주자의 길로 가게 된 하은 자매는 처음부터 연주자가 되

음을 먹었습니다.”

두 남매의 특이한 이력은 정규 학교 학력이 중학교 중퇴다. 하은 자매는 중3때 기타를 치기로 결심을 하고 자퇴를 하게 됐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현재 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동생인 하진 형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현재 대안학교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재학 중에 있다. 장 교수는 자녀교육을 할 때 한 번도 강요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항상 자신이 느끼고 동기유발이 될 때 효과는 배가가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타연주를 할 때 하나님과 교감이 되기를 바라는 하은 자매는 오랫동안 즐겁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하진 형제는 자신이 연주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족 모두 연주자...신바람낙도선교회 주관으로 LA 순회공연

공연무대는 가장 좋은 교육장소...잘하던 못하던 배움 있어

교수(부산 칼빈대학교)는 “이번 공연은 두부전도왕 반봉혁 장로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신바람 낙도선교회 주관으로 LA지역을 찾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시애틀, 유진, 포틀랜드 등 미 북서부지역 공연에 이어 두 번째 미주 순회공연을 가진 필로스 듀오는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 수많은 공연을 선보였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협연은 물론 러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오케스트라, 고양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마에스트로 급 난새 지휘자와 함께하는 별들의 음악회 공연, 그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가진 공연 등 500여 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필로스 듀오의 철칙은 약속을 지키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장형섭 교수는 영동포에서 힐링 콘서트를 해야 했었는데 영화촬영 일정이 같은 시간에 잡혔었다. 웬만해서는 콘서트에 불참할 수도 있었겠지만,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기에 영화촬영 일정을 1주일

된 적은 있어도 저희사정 때문에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니까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해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니까요.”

첫 번째 공연은 장 교수가 군복무하던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 공연이었다. 이미 기타연주자로 활약했던 장 교수는 군복무시절 전역 후 이곳에 위문공연을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시 장 교수에게 기타지도를 받고 있던 7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 후 군부대는 물론 학교와 병원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연무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장소입니다. 그것은 연주를 잘하던 못하던 무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저만하더라도 설수 있는 무대가 매우 한정돼있어서 정작 무대 위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대경험을 통해 그

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저희 집이 피아노와 기타, 플루트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매일 각종 악기소리를 한꺼번에 듣게 됐는데, 완전히 소음 그 자체였어요. 저는 저만의 공간은 조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음악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기타연주회를 갖던 적이 있었어요. 박규희라는 언니의 공연이었는데 그 연주소리를 듣고 ‘아 기타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언니의 체형이 저하고 비슷한 조그만 체형이라 동질감이 생기게 됐고, 나도 언니처럼 기타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진 형제는 “저희가족이 다 음악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누나는 기타를, 그리고 엄마는 플루트 연주를 하는데 저 혼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기타소리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기타연주자가 돼야겠다고 마

바람을 밝혔다. 최근 필로스 듀오의 클래식 기타 소품집을 출시했으며 현재 찬양음반을 준비 중에 있다.

필로스 듀오는 앞으로 링컨홀과 케네디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그들의 실력향상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필로스(Philos)는 포괄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세계정상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정형섭 교수는 지금까지의 필로스 듀오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는 길이 보다 파워풀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이들이 가는 길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필로스 듀오 연락처는 이메일 3400@naver.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이슬람권의 성도들, 복음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권의 성지순례(hajj)와 이드 알 이드하(Eid al-Adha)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1. 이슬람의 성지순례 (Hajj: 7월 21일)를 위하여

전세계에서 200만~300만명 이상 무슬림 성지순례객들이 몰려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알라람 대사원 모습. 안쪽에 그들이 신성시하는 카바 신전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Hajj)》

- 이슬람교 5대 의무 중 하나(평생에 한 번 지켜야 할 의무,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순례자를 위한 후원으로 대신함)

- 메카 신전 주변 지역과 카바 신전 주위를 돌며 죄를 씻기 위한

- 매년 전 세계 200~300만의 무슬림들이 참여함

- 올해는 9월 21~24일까지(언론에 따라 22일 시작한다는 곳도 있음)

- 최근 메르스 감염자 증가와 테러 위협, 대사원 크레인 붕괴 사고와 호텔 화재 등으로 감시와 긴장된 분위기. 사우디 정부 10만 명의 안전요원 투입 발표

(요나 4: 10, 11), (시22:27-28), (계7:10)

■ 요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하는 원수 앗수르인이 심판받아 망망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IS나 하마스, 탈레반과 보코하람 등 이슬람 무장단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혹시 요나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아진다!” 라고 하십니다!

■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메카에 모여 헛된 신을 찬양하며, 헛된 구원의 길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파들, 나아가 전세계 17억 무슬림들을 ayakhi여 여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이 돌아와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문

- 종교적 열망이 있지만 진리를 몰라 헛되이 노력하는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속죄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참길 예수님을 계시해

주소서!

- 무슬림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그들이 땅끝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마지막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 중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소서!

2. 희생제(이드 알아드하)를 위하여

- 하지(Hajj)가 마무리될 때 아



브라함(이슬람권:이브라힘)이 아들을 대신 양을 바친 것을 기념,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절기(이슬람 2대 명절)

- 메카에 있는 순례객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슬림들이 함께 거행함

- 한 가구 당 한 마리의 양 동네와 거리마다 가족을 도살하여 피로 물들여 짐

- 이슬람에는 대속의 개념이 없고 단지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것(이슬람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 올해는 9월 24일 경부터 시작, 짧게는 3일, 길게는 15일까지 휴일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일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문

- 희생제 행사를 치르는 무슬림들이 영의 눈을 떠서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깨닫게 하소서.

- 무슬림 지도자들과 무장단체 대원들에게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역사하사 변화되게 하소서!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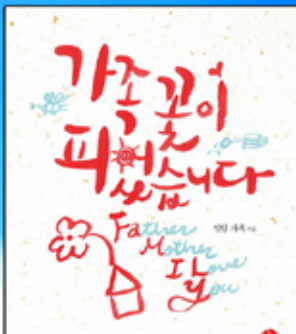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디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김미진 저, 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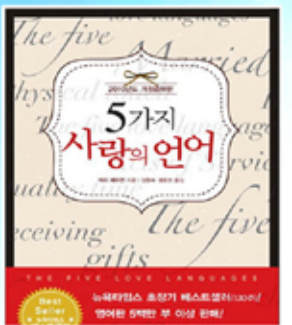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데이비스 캐넌 저, 국제제자훈련원



일러스트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